

정신을 잡고 나 예수를 잡아라.

작성일 : 2010. 09. 01. (수)

작성자 : 김진미 (부산열매교회, 교역자)

새벽부터 정신 집중이 되지 않고 낮 시간도 계속 잠이 오고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귀한 시간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워 ‘주님! 도와주세요. 정신이 차려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며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 말씀 *

사랑하는 자야~

오늘 너의 하루 지켜보았다.

내 말 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정신’에 대해 말하겠노라.

정신일도 하여 잘 받아 적거라.

인생의 값은 정신 값이라

선생을 통해 내 말한 바 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정신이라는 세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정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인생 운명 좌우되고

네 삶, 영의 운명까지 좌우된다고 하였다.

정신을 놓치면 진정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정신을 놓치면

시간을 놓치고, 네 인생을 놓치고,

나 예수를 놓치고, 구원도 놓치고,

재림, 휴거도 놓치고,

네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

인생들을 보겠다.

육체 덩이만 잡고 사는 자 있구나.

순간순간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다.

참으로 미련한 인생!

인생 난 보람 없이 사는 인생!

짐승과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이다.

또 한 인생을 보자.

생각을 많이 하는 자 있구나.

그리하여 자기 생각한 대로

구상하는 대로 사는 인생 있구나!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며 살려 하나

이 또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자 있구나!

또 한 인생을 보겠다.

자기 생각, 정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고

주의 정신 받으려 몸부림치는 자 있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인생은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정신을 받고 그 정신대로 사는 자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섭리의 신부들아.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모두 나의 정신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 선생처럼

내게 받은 정신을 삶으로 실체화시키는

실천력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잡고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놓친다 했다.

정신을 온전히 잡지 않아

다른 자의 정신으로 사는 자 있다.

늘 타인의 주관 받고, 다른 영들의 주관 받고,

흑암의 주관 받아 결실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 많구나.

모든 시간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모든 시간 다 버리고

어떠한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인생이 된다.

매시간 매분 매초 너희는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정신을 집중하여 나 예수를 찾아내야 한다.

눈을 뜨자마자 내 이름 부르며

나 예수를 찾아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너에게 올 수 있도록

나를 불러야 한다.

기도 시간에도 중언부언

정신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곧 잠이 오고,

그 귀한 기도 시간 다 놓치게 된다.

기도 시간 가운데도 정신을 확실히 잡아
숨어 있는 나 예수를 찾아내야 한다.
나 예수가 네 앞에 올 수밖에 없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 집중하여
나를 찾아내어 네 앞에 나를 불러
일대일 실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 시간은 그래도 집중하여
나를 찾는 자 많은데 삶으로 들어가 보겠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나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는 자가 많구나.
눈에 보이는 사람 중심, 환경 중심하며
정신을 놓치고 나 예수를 놓치고 사는 삶이 대부분이구나.

네 삶의 자리에서 먼저는
네 정신을 찾고 그리고 나 예수를 찾아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위치에서
왜 일에 빠져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숨어 있는 나 예수를 찾아내어
대화하며 내 뜻 살피며
내 원하는 바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야지.

지금 정신을 집중하고
나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어 보아라.
예배 때도 정신 놓고 나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정신 놓고 나 예수 없이 멍하니 홀로 살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무엇을 해도 정신 놓고 나 예수 없이
무의미하게 시간 다 놓치고 사는구나.

절대 너희 마음, 정신을 잡아라.
너희 마음과 정신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다.
마음, 정신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
마음, 정신을 놀리면 안 된다.
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네 삶 가운데 있는 나 예수를 찾아라.

얼마만큼 삶 가운데 나 예수를 찾아
나와 하나 되어 사느냐에 따라
네 삶과 네 영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정신 일도 하여라.
늘 집중하여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내 원하는 바를 물어보아라.
그리고 너의 모든 시간 내 뜻대로 움직여 보아라.

네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선생 그리 산다.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다.

눈을 뜨면 정신을 잡고 오직 나를 찾는다.
그리고 오직 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리고 주저 없이 그 일을 행한다.
진정 속 시원히 내 뜻 이루며 산다.
내 정신으로 살고 내 육신 되어 역사를 만든다.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들아.
너희 정신을 잡아라.
너희 정신을 집중하여 나를 찾아라.
나와 24시간 늘 1:1로 만나자.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여 보아라.
진정 내 육신이 되어다오.

나는 오늘도 찾는다.
온전한 정신으로 나를 찾고
빠른 구름 되어 내 육신 되어줄 자를 찾고 있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정신을 잡아라.
그리고 나의 정신을 받아라.
나의 정신을 받는다 함은
너의 마음, 너의 정신과
나의 마음, 나와 일체됨을 말하는 것이요.
너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만나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일체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 나의 정신 받으라,
나의 마음을 받으라.

그리고 24시간 절대 나를 놓치지 말아라.
마치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사람을 찾듯
네 24시간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어라.
나를 가장 많이 찾아내는 자.
진정 나의 정신, 나의 사랑 넘치듯 쏟아 부어 주리라.

너희 정신을 잡으라!
그리고 나 예수를 잡으라!

나의 간절한 바램이다. 사랑한다.

-신랑예수